



독자 편지에 대한 의견을...

저는 컴퓨터 학습을 매달 사보는 열렬한 독자인데 몇가지 청이 있어 이 글을 씁니다.

다음이 아니라 '독자에게서 온 편지'와 'NEW SOFTWARE'란에 관한 내용입니다. '독자에게서 온 편지'란에 매달 한 두가지의 글이 실리는데, 편지를 보낸 독자들은 자신들이 쓴 글이 편집부의 방침에 반영되었는지가 매우 궁금하기 마련입니다. 이 난의 끝에 편집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등을 밝힌 답서를 적어 편지를 보낸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더 많은 독자들이 편지를 띄우지 않을까 생각이 들군요.

그리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난을 좀더 확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광고들은 소프트웨어 제목만 적혀 있어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난은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귀사의 무한한 발전을 빌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1동 886 (2/7)금축연립 B동 204호/오승홍)

편집자 : 오승홍군의 편지 잘 읽었습니다. 저희가 '독자에게서 온 편지'란에 소개하는 내용은 대부분 편집방향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편집자의 말이 없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정보에 대한 독자들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또 새로운 소프트웨어도 많이 쏟아지고 있으므로, 저희 컴퓨터 학습에서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란을 87년 부터는 더욱 강화했습니다.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는 소프트웨어도 선별하여 소개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국민보급형 PC에 대한 기사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매달 컴퓨터 학습을 사보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2년여 동안 부모님을 졸라서 겨우 컴퓨터를 사주신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막상 허락을 받았지만 어떤 컴퓨터를 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친구에게서 빌린 잡지를 보니 한국컴퓨터연구조합에서 국책연구 사업으로 선정된 한국 고유모델의 국민 보급형 16비트 퍼스널 컴

퓨터를 개발하여 보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컴퓨터를 사야겠다고 말입니다. 특히 "한국 고유모델"이라는 말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고나 할까요.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렸으나 12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물어볼 곳도 없습니다. 컴퓨터 학습에서는 이 내용을 기사화시켜 저의 궁금증을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 12-8(22/1)/원종연)

편집자 : 국민보급형 16비트 컴퓨터는 국내의 여러 컴퓨터회사로 구성된 한국컴퓨터연구조합에서 한국고유모델이면서 가격이 저렴한 퍼스널 컴퓨터를 일반에게 보급하는 의도에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고유모델이 될려면 가장 큰 문제가 한글처리방식인데, 이 문제가 여러가지 복잡사정으로 인하여 그 표준안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한국컴퓨터 연구조합에서는 한글 문제가 87년 3월경에나 완결되므로, 국민보급형 PC는 87년 7월에 가서야 판매가능하다고 합니다.